

인체의 어디든지 기어들이가는 기생충들



허 선

1. 올해 마흔일곱된 서울에 사는 주부인 김씨 아주머니는 지금도 계장만 보면 7년전 병원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지금부터 9년전,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청량리시장에 나갔었다. 거리에서 참깨를 파는 것을 보고, 어릴 때 고향인 강화에서 즐겨먹던 계장 기억이 났다. 열마리를 사서 장을 담궈 식탁에 올렸다. 계장을 먹은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곤 하였다.

방사선검사를 받고 결핵이란 진단으로 약을 복용하였다. 조금 나아지는 듯 하더니, 7년전 봄에 갑자기 견딜 수 없이 아랫배가 아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아랫배에 혹 같은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다.

그후 몇개월 더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어 지금까지 별탈없이 지내고 있다. 계

장을 먹어서 계에 있던 기생충이 몸 여러 부위에 가 생긴 병이라고 하니, 암이 아니기 천만 다행이었다.

2. 올해 서른다섯된 모 무역회사의 홍과장은 딸 하나를 둔 모범 가정이다. 그런데 고민스러웠던 일이 있었다. 5년전부터 일년에 몇차례씩 경기가 있었다. 약을 먹으면서 그런대로 지내왔는데, 최근 왼쪽 팔에 힘이 없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을 방문하였다. 혈청검사, 뇌컴퓨터 촬영검사 결과 뇌에 기생충이 기어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약물치료법이 없어 뇌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후에는 경기도 사라지고, 완전치는 않지만 팔에 힘이 돌아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의사선생님께서 이병이 뱀을 날로 먹을 때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해보니 결혼 직후인 6년전, 장인택

66 폐흡충은

폐뿐만이 아니라, 자궁,
골반, 방광벽까지 침투하기도 하며
피낭유충(애벌레)이
어린이에게 들어가 성충이 되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99

인 홍천에 갔다가 정력에 좋다고 하여 날
뱀을 먹은 기억이 있다. 뱀을 날로 먹어
기생충에 걸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3. 제주도에서 글농장을 하는 중농인
마흔다섯된 이씨는 농사짓고 아이들 공
부시키는데 큰 불편없이 건강하였다. 그
러던 중 4개월 전부터 갑자기 목과 팔이
돌아가고 의식을 잃는 간질 발작을 경험
하였다.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의아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불안
감에 견딜 수 없어 병원을 방문하였다.

혈청검사 및 뇌컴퓨터촬영 결과 뇌에
기생충이 있다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중
이다. 그후 간질 발작은 없어지고, 주기
적으로 혈청검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돼
지고기 육회를 즐겨 먹어 왔었다. 대변에
서 호물거리는 국수 조각 같은 토막이 나
오는 걸 알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었다. 약을 복용한 후에는 그런 토막도
나오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생충이 주 기생부
위를 벗어날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 예년에 비해 폐
흡충에 걸리는
사람이 줄었다고
는 하지만 아직
까지도 게나 가
재를 생식하는
지역이 남아 있
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여주는 예들이다.

첫번째 이야기는 폐흡충(페디스토마)이 폐뿐만 아니라 전신에 퍼졌던 드문 예의 하나이다. 이 아주머니의 경우는 기생충이 주 기생부위인 폐는 물론 자궁, 골반, 방광벽까지 기생충이 가서 덩어리(육아종)를 만들어 통증을 일으켰다. 수술을 받고 「프라지칸텔」이란 약을 써서 완쾌되었다.

폐흡충에 걸리는 경우를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가 흥억기침을 하는데에 가재가 좋다고, 즙을 내어 마시게 해 가재에 있던 폐흡충의 피낭유충(애벌레)이 어린이에게 들어가 성충이 되어 병을 일으키곤 한다. 이 아주머니에서 처럼 참개로 장을 담글 때, 피낭유충이 주지않고 남아있다가 병을 일으키곤 한다.

요즘은 1960년대나 70년대에 비해 폐흡충에 걸린 사람이 무척 줄어 들었다. 그것은 가재나 개의 서식 처가 산업화와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해 많이 파괴된 것이 큰 원인이다. 또한 좋은 치료약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엔 아직도 폐흡충의 유행이 남아 있다.

또한 김씨 아주머니의 경우처럼 결핵으로 진단 받았으나 실제로는 폐흡충에 걸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방사선검사 만으로는 두가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개가 요즘은 귀해져서 도시인들도 별미로 식탁에 올려 놓으므로, 그런 경우 반드시 익혀서 조리해야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수십 예가 알

66

스파르가눔은

보통 살갓 밑에 있어
덩어리로 만져지는 것 외에는
별 증상이 없으나, 뇌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위험하게 된다.

99

려져 있는 「뇌스파르가눔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홍과장처럼 정력에 좋다고 뱀을 날로 먹거나, 시골에서 개구리를 잡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스파르가눔」이란 기생충은 보통 살갓 밑에 있어 덩어리로 만져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이처럼 뇌에 가면 매우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진단은 효소면역법(ELISA)이라는 혈청 검사나 뇌컴퓨터 촬영으로 할 수 있으나, 아직 적당한 치료약제가 나오지 않아 뇌수술 이외로는 고치기 어려운 무서운 병의 하나이다.

요즘은 뱀탕은 먹어도 날뱀을 먹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몸에 허한데 좋다고 날로 먹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정력에 좋다면 뭐든지 먹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였다.

세번째는 농부가 돼지고기를 날로 먹어 유구조충(갈고리촌충)에 걸리고, 이 기생충의 충란을 우연히 다시 섭취하게 되어 「뇌유구낭미충」에 걸린 이야기이



▲ 원래의 기생 부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식의 위험함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다. 국수 조각같은 토막이 이 기생충의 편절(마디)이다. 떨어져 나온 편절에는 기생충의 충란이 같이 나오므로 이것이 다시 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병은 우리나라에 만도 수백 예가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는 멕시코 등 중남미, 동유럽, 인도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병이다.

이것 역시 보통은 살갓 밑에 「유구낭미충」이란 기생충이 있는 것이지만 이 농부에서처럼 뇌로 가면 간질 등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일단 효소면역법과 뇌 컴퓨터 촬영으로 진단이 되면 「프라지판텔」로 호전시킬 수 있다. 원인을 몰라 평생 간질에 대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나 치료약이 없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비하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약으로 치료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혈

청검사를 받아 실제로 기생충이 죽고 병이 나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생충은 반드시 돼지고기를 날로 먹었다고 걸리는 것은 아니다. 주위에 유구조충에 걸려 그 충란을 몸밖으로 내는 사람이 있을 때, 주위의 음식이나 물이 오염되어 걸리는 경우가 더 흔하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함을 알려 주는 기생충증의 예이다.

기생충증 주 기생부위를 벗어나서 신체 다른 부위로 가는 것은 위에 언급한 폐흡충, 스파르가눔, 유구낭미충 외에도 무수히 있으나 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풍토병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들쥐, 셋째 예들의 기생충 감염은 모두가 성충이 아닌 애벌레에 의한 경우이다. 이렇게 애벌레가 성충보다 사람에게 더 심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이 애벌레들이 성충이 되기 위해 정상적으로 살아야 할 동물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고 심지어는 그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생충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가 보다. 이렇게 원래의 기생 부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생식의 위험함을 알고 각자 개인 위생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필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의박)